

# 전직 빅리거 김광현 vs ML 꿈꾸는 이정후 '진검승부'

오늘부터 7전4선승제 KS...가을야구 두 번째 투타 대결  
김광현 "이정후는 정말 좋은 타자...충분히 MLB 가능"  
이정후 "김광현 선배할 때 더 좋은 타자 돼야겠다 생각"

메이저리그(MLB)를 경험하고 돌아온 SSG 랜더스의 좌완 에이스 김광현(34)과 빅리그를 꿈꾸는 리그 최고 타자 이정후(24·키움 히어로즈)가 가장 높은 무대에서 진검 승부를 펼친다.

SSG와 키움은 1일부터 7전4선승제의 한국 시리즈(KS)에서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벌인다.

KBO리그 사상 첫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일군 SSG는 KS 정상까지 정복해 완벽한 통합 우승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생각이다. 준플레이오프(준PO), 플레이오프(PO)를 거치며 기세를 잔뜩 끌어올린 키움은 창단 첫 우승을 꿈꾸고 있다.

양 팀의 대결에서 국내 최고 좌완 투수로 꼽히는 김광현과 올해 리그 최고 타자로 자리매김한 이정후의 투타 대결은 특히 눈길을 끈다. 김광현은 KS 1차전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광현은 전직 빅리거고, 이정후는 MLB 무대를 꿈꾸고 있다. SSG 프랜차이즈 스타로 활약하던 김광현은 2019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미국에 진출, 2020~2021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뛰었다. 2년간 35경기(선발 28경기)에 등판해 10승 7패 2세이브 평균자책점 2.97을 기록했다.

2021시즌을 끝으로 세인트루이스와 계약이 만료된 김광현은 당초 MLB 잔류 쪽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MLB 노사분쟁으로 3개월 넘게 직장폐쇄가 이어지면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김광현은 친정팀의 적극적인 구애를 받아들여 전직 KBO리그 복귀를 결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년 총액 151억원에 SSG와 계약한 김광현은 올 시즌 28경기에서 173%이닝을 소화하며 13승 3패 평균자책점 2.13을 기록, 건재함을 과시했다.

2017년 키움 입단 이래 매 시즌 풀타임을 소화한 이정후는 부상 없이 올해, 내년에 풀타임 시즌을 소화하면 2023시즌 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시도할 수 있다.

이정후는 MLB 진출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고, MLB 스카우트도 이정후를 주목하고 있다.

이정후는 그야말로 올해 리그 최고의 타자로 활약했다. 타율(0.349), 안타(193개), 타점(113개), 출루율(0.421), 장타율(0.575) 부문 1위를 휩쓸어 타격 5관왕에 등극했다.

김광현이 국내에 복귀하면서 올해 정규시즌에 3년 만에 투타 대결을 펼친 둘은 서로를 인정하면서 승부를 즐긴다고 밝혔다.

김광현은 "이정후를 상대할 때마다 '역시 좋은 타자'라는 생각이 든다. 원래 좋은 타자



였는데 파워와 노리프 등은 내가 미국에 가기 전보다 더 좋아졌다"며 "이정후가 충분히 MLB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후는 "김광현 선배를 상대할 때마다 '내가 정말 좋은 투수의 공을 보고 있구나'라고 감탄한다. 그때마다 더 좋은 타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통산 상대전적에서는 이정후가 김광현에게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정후는 김광현을 상대로 타율 0.467(30타수 14안타) 1홈런 4타점으로 잘 쳤다. 3루타도 하나를 때려냈다.

3년 만에 다시 마주한 올해에도 이정후는 김광현을 상대로 타율 0.364(11타수 4안타) 1홈런 4타점으로 강한 면모를 자랑했다.

김광현도 이정후도 가을야구 무대에서는 모두 제 몫을 토했다.

김광현은 포스트시즌 통산 19경기에 등판해 4승 3패 2세이브 평균자책점 3.26을 기록했다. 특히 KS에서는 통산 10경기에 나서 3승 2패 2세이브 평균자책점 2.18로 한층 단단한 모습을 자랑했다.

포스트시즌 통산 26경기에 나선 이정후는 타율 0.389(108타수 42안타) 1홈런 20타점 5도루 19득점의 성적을 올렸다. 올해에도 LG 트윈스와의 PO 4경기에서 타율 0.500(16타수 8안타)을 몰아치고 시리즈 최우수선수(MVP)에 등극했다.

김광현과 이정후는 포스트시즌 무대에서

투타 대결을 펼친 적이 있다. 2019년 10월 14일 PO 1차전에 김광현이 선발 등판했고, 이정후가 3번 타자로 나섰다.

당시 1회 1사 1루 상황에 이정후는 김광현을 상대로 중전 안타를 뽑아냈다. 4회에는 김광현이 선두타자로 나선 이정후를 투수 직선 타로 처리했다.

이번 KS는 3년 전과는 다르다. 김광현은 MLB를 거치면서 한층 노련미를 뽐내는 투수가 됐다. 이정후는 완성형 타자로 진화했다.

팀 승리를 위해서 둘은 서로 반드시 넘어야 하는 상대다. 3년 만에 펼쳐지는 김광현과 이정후의 진검승부에 관심이 쏠린다.

## “손흥민·김민재의 한국, 카타르월드컵 8강 가능” 英언론

최종엔트리에 이강인 포함 예상

한국 축구가 2010 남아공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원정 16강 진출을 이룰 수 있을까.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대전에 따라 8강 진출까지도 가능하다고 봤다. '인디펜던트'는 최근 2022 카타르월드컵 '국가별 스쿼드 가이드'를 전하며 각국 최종엔트리와 성적 등을 예상했다.

'인디펜던트'는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한국은 2002 한일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했다. 슈퍼스타 손흥민(토트넘)이 불꽃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에 대해 "골 가뭄으로 이번 시즌을 시작했으나 한국을 16강, 혹은 그 이상으로 이끌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길 기회를 얻을 것이다"고 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핵심 수비수로 자리잡은 김민재(나폴리)도 주목했다.

김민재에 대해선 "그는 수비에서 지배력이 높고, 결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칼리두 툴리발리(첼시)를 빨리 잊게 했다"며 "카타르에서 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이적 소문이 더 나올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국은 H조에서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과 16강 진출을 다툰다.

객관적인 전력과 선수 구성을 따져 우루과이, 포르투갈의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인디펜던트'는 "한국은 16강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H조 2위로 오른다면 16강에서 브라질(G조 1위 전망)과 만날 수 있다"면서 "한국이 첫 경기에서 우루과이에 패하지 않는다면 조 1위로 16강에 갈 수 있다. 8강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예상 스쿼드에는 이강인(마요르카)의 이름을 포함한 게 눈에 띄었다.



10월 30일 제주 핀크스GC에서 열린 SK네트웍스-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파이널라운드, 이소미가 우승 트로피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KLPGA 제공)

## 완도 출신 이소미, KLPGA 통산 4승

SK네트웍스-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우승  
최종 합계 18언더파 270타...4승 중 2승 제주

섬 출신인 이소미(23·SBI저축은행)가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SK네트웍스 서울경제 클래식에 통산 4승을 달성했다.

이소미는 10월30일 제주 서귀포 핀크스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SK네트웍스-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총 상금 8억원, 우승 상금 1억 4400만원)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18언더파 270타로 우승했다.

18언더파 270타는 핀크스 골프클럽에서 나온 최솟아 우승 기록이다. 기존 최솟아 우승 기록은 2019년 최혜진이 세웠던 15언더파 273타였다.

이소미는 이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를 잡아냈고 보기는 3개를 범했다. 2위 박현경(13언더파)과의 격차는 5타다.

2019년부터 정규 투어에 합류한 이소미는 통산 4승째를 따냈다. 섬 출신인 이소미는 섬에서 열리는 대회에 강한 면모를 또 다시 과시했다. 전남 완도가 고향인 이소미는 지난해 4월 제주에서 열린 시즌 개막전인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소미는 제주에서 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플레이 스타일이 큰 것 같다. 나는 다른 선수들보다 낮게 잘 친다. 낮은 샷을 구사하기 때문에 거리 손해를 거의 안 본다. 많이 봐도 한 클럽에서 한 클럽 반 정도만 본다. 이게 바람부는 곳에서의 장점이라 생각한다"며 "그리고 동계훈련 덕분에 편한 느낌이 있다"고 밝혔다.

이소미는 이태원 핼러윈 참석에 대해 "오늘 최종라운드 시작 전에 10대, 20대가 많다는 기사를 봤는데 같은 또래인 친구들이 사고를 당한 거라 더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며 "내가 감히 KLPGA를 대표한다고 말하기엔 아주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윤지와 김수지, 이가영이 12언더파로 공동 3위에 올랐다. 유혜란과 이정은이 11언더파로 공동 6위다. 황예나가 10언더파로 8위다. 이소영과 김민주, 정슬기가 8언더파로 공동 9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7언더파로 공동 12위에 오른 이예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신인상을 확정했다. 이예원은 "올 해에 꾸준히 잘 한 것 같아서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다. 85점 정도 주고 싶다. 내가 목표로 했던 것들을 다 이루지는 못해서 15점을 줬었다"며 "마지막 2개 대회에서는 생애 첫 우승을 목표로 도전해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선발 출전 11명 몸값 가장 비싼 축구단은 맨체스터 시티

올해 맨시티 베스트11 평균 이적료 8556억

파리생제르맹 2·맨유 3·리버풀 4·첼시 5위

손흥민 소속팀 토트넘 선발 이적료 세계 13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세계에서 선발 출전 선수들의 몸값이 가장 비싼 축구단으로 나타났다.

국제축구연맹(FIFA) 산하 국제스포츠추진기구 센터(CIES)는 10월31일 유럽 5대 프로축구리그 구단들의 2022~2023시즌 국내 리그 선발 출전 11명 명단과 이들을 영입하는 데 들인 비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맨시티가 베스트 11을 꾸리는 데 쓴 이적료는 평균 6억5000만 유로(약 8556억원)였다.

이번 시즌 리그 경기 중에서도 지난 22일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전(3-1 맨시티 승) 선발 명단이 가장 비쌌다. 열릴 홀란과 그릴리시, 케빈 더 브라워너 등 선발 출전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 맨시티가 상대 구단에 지급한 이적료는 7억2600만 유로(약 1조269억원)로 집계됐다.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음바페 등을 보유한 프랑스 리그1 파리생제르맹이 평균 5억 1000만 유로(약 7212억원)로 2위였다.

제이든 산초와 안토니 등이 뛰는 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평균 4억8000만 유로(약 6788억원)로 3위다.

다윈 누녜스와 버질 판 다이크 등을 보유한 리버풀은 평균 4억9000만 유로(약 5783억원)로 4위, 케파 아리사발라가와 웨슬리 포파나 등이

뛰는 첼시는 평균 3억9300만 유로(약 5557억원)로 5위, 가브리엘 제주스 등을 보유한 아스날은 평균 3억8200만 유로(약 5401억원)로 6위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양대 축인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각각 3억7000만 유로(약 5232억원), 3억3400만 유로(약 4723억원)로 7위와 8위다.

이탈리아 세리에A 유벤투스가 3억 유로(약 4242억원)로 9위,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이 2억9400만 유로(약 4158억원)로 10위다.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은 2억3000만 유로(약 3253억원)로 13위에 올랐다.

뉴시스